화순군 신소득 작목 아스파라거스 재배면적 확대·품질 향상 '잰걸음'

소득화 시범사업 공모 선정
수출 확대·농가 경쟁력 지원

화순군 한 농가에서 아스파라거스 수확이 한창이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남도 농업기술원 주관 신소득 아열대작목 육성 소득화 시범에 공모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스파라거스는 남유럽이 원산지인 다년생 채소로 지방, 칼로리는 낮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기능성 식품으로써 인기가 높다.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풍부하고 피로 해소, 숙취 해소에 효과가 뛰어나다. 루틴 성분도 다량 함유돼 혈압 강하에도 효과적이다.

화순군은 전남도 농업기술원·한경대 산학협력단과 아스파라거스 규격품 생산 기술 개발 연구 추진, 올해 상반기 아스파라거스의 글로벌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추진 등 아스파라거스 수출 확대·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아스파라거스 재배면적 확대·품질 향상을 위해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 시범과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아스파라거스 우량 신품종 보급 시범 등 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을 위해 신축 시설하우스와 아스파라거스 종자를 지원 중이다. 지난해 0.2ha(1개소)의 재배 면적을 확대했고, 올해는 0.4ha(2개소)의 면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관리 기술도 보급해 농가 경영비 절감, 규격에 따른 품질 중심 선별 출하로 수확 농가의 판매 경쟁력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아스파라거스 우량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은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 0.2ha, 노지 0.3ha에 신품종을 보급해 아스파라거스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 지역 아스파라거스의 재배 면적은 5.3ha(12개 농가)로, 전남에서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자랑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농가 소득 증대,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효자노릇 '톡톡'

1025억원 발행…판매율 99.9%

함평사랑상품권이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판매율 99.9%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사랑상품권은 지난해까지 총 1025억원이 발행된 가운데 1024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군은 10% 특별할인과 더불어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가맹점 확대 등 지역화폐로서 인지도와 편의성이 높아진 덕분에 판매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협약을 통해 상품권 구매처를 기존 농협뿐만 아니라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 19곳으로 확대하는 등 사용자들의 구매 접근성을 높인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 관계자는 "상품권 수요량 증가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발굴사업 공모

담양군은 오는 29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현장 적용기술 발굴사업에 지원할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현장적용기술 발굴을 통해 조기 영농정착 성공모델을 구축, 청년층의 농업·농촌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39세 이하의 담양군에 거주(주민등록상 전입일 6개월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영농경영 2년 이상의 청년농업인이며, 본인의 영농현장에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자부담 1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영농기술에 도입할 수 있는 ICT장비 또는 시설, 가공 시설 설비 장비 구입비,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 BI · CI 개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담당(061-380-343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시, 농어민 1만3749명 공익수당 60만원씩 지급

내달 4일까지…나주사랑상품권

나주시가 올해 지역 농어민 1만3749명을 대상으로 82억5000여만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1인당 60만원으로 책정된 농어민 공익수당을 내달 4일까지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계속해서 운영중인 경영주만 해당된다.

지급이 확정된 농어민은 내달 4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 1월 접수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추가신청 기간인 1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농어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나주시는 읍·면·동별 담당자 현지 출장 확인과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면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정찬균 나주시 부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성군 부서 소통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높인다

전담반 구성 '찾아가는 상담실'

장성군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부서별 이월체납액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부서 3곳을 직접 찾아가 부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외수입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컨설팅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 재정 확충 및 세수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입 과목의 다양성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별 징수 활동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부서별 체납 상황을 총괄 분석해 그에 맞는 징수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세입 관련 직원을 전담반으로 구성하고 재산조회, 압류, 결손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방법 고액체납자 원인분석 및 징수방안 전산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안광수 장성군 재무과장은 "부서 간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대책 공유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활발한 업무 소통으로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해 중요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강진만 해역에 새꼬막 종패 460t 살포

강진군이 새꼬막 종패 살포를 시작하는 등 패류메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8일부터 새꼬막 양식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진만 8개 해역 57ha에 새꼬막 종패 460t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새꼬막 주요 살포 시기인 4~5월 두달간 인근 시·군에서 2cm크기의 새꼬막 종패 460t을 5억7000만원을 투자해 용산리, 신기리, 벌정리 등 8개 해역에 살포하고 있다. 종패 살포는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에 하역한 후 마을 면허지 내에 일몰 5시간 전에 물때에 맞춰 3~4회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도암면 용산리 새꼬막 양식어가 김옥태 씨는 "조류의 힘이 좋은 사리때를 피하고 조류의 힘이 약하고 완만한 조금 때 살포해야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종패가 자리를 잘 잡고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살포한 새꼬막 종패는 2년 후 4cm정도까지 자라며 살포 이후 이상기온, 고수온 및 큰 태풍만 피하면 뿌린 투자액의 2배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새꼬막 양식어가들이 강진만 8개 해역에 새꼬막 종패를 살포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